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오랜 혼인 끝에 남은 재산,
내 몫까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 2억 2,800만 원

재산분할

장기 혼인 · 쌍방 이혼 인용 · 재산 형성 기여 평가



인 천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법무법인 해율

피고(반소원고)

변 론 종 결 2020. 1. 17.

판 결 선 고 2020. 2. 19.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그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오랜 혼인생활 동안 갈등을 겪은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고 서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며, 상대방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였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많아도 의뢰인의 몫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따져야 했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을 구분했습니다. 파탄 책임은 쌍방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서로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에서는 장기간의 혼인, 경제활동과 가사·양육에 관한 역할 등을 종합해 비율을 각 50%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주장과 별개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를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장기 혼인 · 쌍방 이혼 인용 · 재산 형성 기여 평가

가족 문제로 멈춘 삶, 당신의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랜 혼인 뒤 상대방에게 편중되어 있던 재산. 해율은 재산분할 2억 2,8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 수십 년 함께 살았지만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라면?
- 별거 뒤 상대방이 예금이나 보험을 처분한 것 같다면?
- 서로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이혼소송이 길어지고 있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울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부동산 관련 권리, 예금, 보험 등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살폈고, 별거 이후 재산 변동의 처리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명의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에게 부족한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정했습니다. 명의와 최종적으로 배분받을 몫을 구분한 결과입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2억 2,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므로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사례는 아닙니다.

이 결과는 혼인 파탄의 책임 판단과 별도로 재산분할의 실익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준비할 때 감정적 갈등뿐 아니라 남은 재산과 이후 생활 기반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오랜 혼인 뒤 상대방에게 편중되어 있던 재산. 해울은 재산분할 2억 2,8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울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오랜 혼인 뒤 상대방에게 편중되어 있던 재산. 해울은 재산분할 2억 2,8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 가사·양육과 경제활동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된다면?
- 집을 나왔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라는 말을 듣는다면?
- 황혼이혼 후 생활을 위해 자신의 재산 몫을 확보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